

유아대상 동요활동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문동규

삼육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A Meta-Analysis on Effects of Singing Activities for Children

Dong-Kyu Moon

Child Care Education of Sahm-yook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유아대상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살피기 위해, 지난 16년 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된 요인에 대해 메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요인들의 변화추이를 살피기 위해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동요활동 관련 요인들의 전체효과크기와 요인군들은 모두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인군과 문화예술적 요인군은 큰효과크기를 보인 반면, 심리·정서적 요인군은 중간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군의 하부요인은 타인인식능력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유의미한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연친화적행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요인군의 하부요인 중 자기표현 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은 큰효과크기를 스트레스역제와 정서지능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적 요인군의 하부요인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창의적 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연도에 따른 효과크기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동요활동 관련 요인들의 전체효과크기와 사회적 요인군, 심리·정서적 요인군, 문화예술적 요인군 등 각 요인군 별 효과크기 변화추이가 최근 출판물에 가까울수록 활동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동요활동을 통한 효과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진한 심리·정서적 효과 축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노력이 있어야 하며, 현 유아 교육관점에 맞는 창의력 효과 증진을 위한 체계화된 동요활동 구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Abstract This study covers an investigation using meta-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effects of singing activities for children, focusing on the dissertations conducted for master and doctor degrees and the studie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over the past 16 years. A meta-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hanges of the factors in each published year.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Both the entire effect size and the groups of singing activity related factors were revealed to have significant effect sizes. While the group of social factors and the group of cultural & artistic factors showed large effect sizes, the group of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s appeared to have an intermediate effect size. The sub-factors of the group of social factors were shown to have significantly larger effect sizes than the others, except for the factor of capability of recognizing others. Among the sub-factors, naturally friendly behavior showed a relatively larger effect size than the others. In the sub-factors of the group of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s, self-expression capability and self-control capability showed large effect sizes and stress suppres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intermediate effect sizes. Among the sub-factors of the group of cultural & artistic factors, except for creative capability which showed an intermediate effect size, all of the sub-factors showed large effect siz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trend of the effect size changes in each published year, the trends of the entire effect size and the effect size of each factor, such as the groups of social factors,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s and cultural & artistic factors, showed that the activity effects increase as the publication year comes closer to the most recent year.

Keywords : Children, Meta-analysis, Meta-regression analysis, Singing Activities, Singing program,

*Corresponding Author : Dong-Kyu Moon(Sahm-yook Health University)

Tel: +82-10-6210-8670 email: moon3636@shu.ac.kr

Received August 30, 2017

Revised September 19, 2017

Accepted November 3,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1. 서론

유아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음악을 접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가정 그리고 그 밖의 장소에서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으로 음악교육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다. 유아기 음악경험은 유아의 심미감을 자극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게 할뿐 아니라 느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통해 정서표출 및 정서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 받는다[1, 2].

Orff와 Dalcroze는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을 다양화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 등 전인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3]. Koelsch, Fritz, Schulze, Alsop, & Schlaug[4]도 양질의 음악활동이 유아의 전두엽에 영향을 주어 인지지각, 감각, 기억 등을 활성화 시켜 감정조절 및 자기통제, 사고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을 직시한 교육과학기술부[5]는 통합과정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예술경험영역에서 유아가 능동적으로 음악적 요소를 탐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은 교육현장에서 노래 부르기, 소리 탐색, 연주 활동, 감상, 동작 및 리듬 활동 등의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6], 그 중 교육현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는 유형은 신체를 악기로 한 노래 부르기로 조사되었다[7, 8]. 유아기에 있어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Young와 Glove[9]는 음악활동 유형 중 노래 부르기가 특히 중요하며, 큰 영향력을 지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활동임을 밝히고 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손유희 또는 음률활동을 위한 매체로 활용되고 있는 동요는 유아에게 가장 친근한 소재의 노랫말과 선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랫말은 문학적 가치를 표현하고 선율은 음악적 아름다움을 표현한다[10, 11]. 따라서 유아들은 노래를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적 요소를 접하게 될 뿐 아니라 문화예술적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선생님, 동료, 그 밖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노래 부르기를 경험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12, 13].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6년 간 유아를 대상으로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유아대상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요인은 크

게 보아 사회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문화예술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요인은 유아가 접하게 되는 부모, 교사, 또래 등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으로 또래 유능성[14, 15], 의사소통[16, 17], 자연친화적 행동[18, 19], 타인인식 능력[20, 21], 포괄적 의미의 친사회적행동[22, 23] 등의 요인들이 보고되고 있고, 심리·정서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24, 25], 자기조절[26, 27], 자기표현[120, 28], 정서지능[29, 21]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적 요인으로는 미술적 능력[30, 31], 신체적 능력[16, 32], 언어적 능력[30, 33], 음악적 능력[34, 19], 창의적 능력 향상[15, 19]과 관련된 요인들이 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선행연구들은 동요의 효과와 관련한 요인들을 몇 가지 유사한 요인들만 살핀 단편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김혜영[26]은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표현능력만을 동요활동 효과요인으로 살피고 있고, 박지연[20] 역시, 정서지능과 자기표현능력만을 동요활동 효과 요인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우수경[35]은 음악적 능력을 김지영[24]은 스트레스 요인만을 효과요인으로 살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동요활동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면만 살피므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함으로 인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아쉬움을 벗어나, 동요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을 좀 더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있다.

노성희[18]는 자기조절능력, 자기표현능력 등 심리·정서적 요인과 자연친화적 태도 등 사회적 요인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살피고 있으며, 최성은[36] 역시, 또래유능성, 의사소통 등 사회적 요인과 자기조절능력 등 심리·정서적 요인, 그리고 문화예술적능력 요인으로서 신체적 능력 등을 효과요인으로 살피므로 기존의 단편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들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편적으로 몇 가지 유사한 요인들만 살펴본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좀 더 다차원적으로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각기 다른 연구 기준과 대상에 따른 효과성을 살핀 선행된 연구들을 사회적, 심리·정서적, 문화예술적 측면 등 각각의 요인별로 구분하고 각 요인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성을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살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난 16년 간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밝히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연구의 대부분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요활동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차원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 역시 각기 다른 이해의 틀로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피고 있어 동요활동의 실제적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6년 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동요활동 효과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 어떤 요인들이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동요활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일정한 영향력을 지닐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선행된 연구들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연도에 따른 동요활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효과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 후속연구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동요활동의 효과성과 관련한 비중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유아대상 동요활동의 효과에 대한 전체요인군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대상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군, 심리·정서적 요인군, 문화예술적 요인군에 대한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유아대상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군, 심리·정서적 요인군, 문화예술적 요인군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넷째, 유아대상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의 출판연도에 따른 변화추이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동요의 개념 및 효과성

노래 부르기는 유아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중 하나로[37], 표현을 촉진하고 상상력을 발달시키며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8]. 노래 부르기에 많이 활용되는 노래를 일컬어 동요(童謠)라고 하는데, 유아교육사전에서는 아동의 생활감정, 심리 등을 음악의 형식을 빌어 표현한 정형적인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39], 국어연감(2010)은 하나의 문학 장르로, 아동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감

정이나 심리등을 표현한 정형시 또는 곡을 붙여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40].

동요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소박하며 선명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 부르면 부를수록 흥이 있어 음악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41]. 또한 노랫말 자체에 즐거움의 요소가 강하여 넓은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42].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은 동요의 교육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38, 43]. 첫째, 유아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노래하게 되므로 행복감과 더불어 음악적 감동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풍부한 정서와 음악성이 발달된다. 둘째, 유아들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거나 발산함으로써 균형진 감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셋째, 유아들은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어울리게 맞춰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협동성과 사회성이 발달된다. 넷째, 유아의 뇌기능 즉, 지각력, 기억력, 사고력, 상상력이 촉진되어 인지능력, 언어능력, 창의력이 향상된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은 다양한 종류의 동요를 듣고 불러보는 기회를 가지므로 청각의 민감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심폐기능 또한 향상된다.

이와 같이 동요활동은 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음악적, 창의적, 언어적 능력 등 문화예술적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동요활동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유아를 대상으로 동요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은 선행연구들 가운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보아 사회적, 심리·정서적, 문화예술적요인으로 구분지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남임[29]의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또래유능성은 사전검사에 비해 8.16점 증가하였고 비교집단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2.87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혜선[28]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의 또래유능성은 0.38점 증가했고 비교집단은 0.2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윤정, 이대균[44]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은 9.8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4.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성은(2005)의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이 0.26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0.26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간의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에 있어 노성희[18]의 연구결과 사전검사에 비해 실험집단은 7.25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성은[36]의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이 0.33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이 0.0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표현능력에 있어서 정희정, 김혜순[27]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은 0.58점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이 0.0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큰 효과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혜영, 김정애, 손지영, 김정하, 오숙현[26]의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이 1.24점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0.23점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적요인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선, 오숙현[31]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은 4.42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0.1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민주, 장슬하, 김채연[30]의 연구에서는 실험집단 6.98점, 통제집단은 0.47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능력에 있어서 신현정, 이선경[34]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은 3.45점, 통제집단은 1.6점 증가하였으며 김은자[45]의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이 16.33점, 통제집단이 14.7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각각의 연구관점에서 동요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동요활동 효과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 어떤 요인들이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

3.1.1 자료수집

유아대상 동요활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자료검색으로 2001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발표된 국내 석·박사 논문 및 학술지를 대상으로 ‘유아’, ‘아동’, ‘동요’, ‘동요활동’, 등을 key word로 사용해 자료를 검

색하였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SI) 등을 활용하였다. 2차, 자료선정으로 검색된 석·박사 논문 275편, 학술지 76편 총 351편 연구 가운데 본 연구 분석 대상 선정 기준,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밝히고 있어 효과크기의 변환이 가능한 연구들을 분석 최종 자료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석·박사논문 32편, 학회지 17편 총 49편이다. 3차, 분석자료 선정으로 검색된 석·박사논문 32편, 학회지 17편 총 49편 중, 석·박사논문과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논문 9편은 원논문 만 선정하였다. 따라서 선정된 최종 분석 자료는 석·박사논문 23편, 학회지 17편 총 40편이다.

3.1.2 자료분석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MS Excel 프로그램으로 코딩하였으며, 코딩 작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자를 포함한 해당 전문가 3명이 사전 협의 없이 각각의 연구물을 선정하고 코딩하였다. 이후, 코딩 최종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된 사례는 합의를 통해 바로잡았다.

3.1.3 통계분석

통계 분석은 메타분석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MA2(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분석 모형선택은 동질성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무선평과모형(Random)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효과크기 해석은 95%신뢰 구간을 산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평균 효과크기의 해석은 Cohen[46]의 표준화 평균차 효과크기 기준을 따랐다. 따라서 .20이하의 작은효과크기로, .20부터 .80이하의 중간효과크기 .80이상은 큰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출판편의(Publication bias) 검증은 funnel plot, Duval과 Tweedie[47]의 Trim-and-Fill 그리고 Orwin[48]이 제시하는 안전성 계수 검증(Nfs)을 실시하였다. 먼저, 시각적 분석인 funnel plot검사 결과 좌우측이 서로 상쇄되어 평균값이 도출되어서 편향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Figure 1>), Trim-and-Fill 검사결과 보정을 위해 추가된 연구 수는 3개(Black Spots)로 3개의 연구가 추가되기 전의 효과크기는 ES = 1.065이고, 추가된 후의 효과크기는 ES = 1.105로 효과크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편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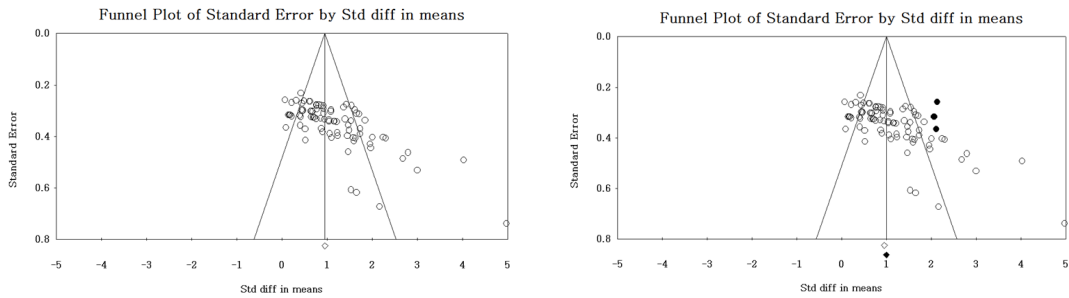


Fig. 1. funnel plot

Table 1. Overall effect size

	K	ES	95% IC		Q _w
Fixed	88	0.951	0.882	1.021	334.545***
Random	88	1.066	0.927	1.204	

***p<.001

안전성 계수 검증(Nfs) 결과 안전성 계수는 750으로 전체효과크기(ES = 1.066)가 Cohen[46]의 효과크기 해석기준에서 작은효과크기인 .20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크기 산출결과가 0인 분석요인이 750개 이상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메타분석에서 나타난 효과크기는 매우 안정된 결과로 판단되었다.

4. 연구결과

4.1 전체효과크기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전체효과크기 값을 제시함에 있어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따라서 수정된 평균 효과크기를 재산출하여 랜덤모형(Random Model)을 채택한 값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효과크기 값은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1.066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927, 상한값 1.204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은 Cohen[46]이 제안한 표준화 평균차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80보다 큰 수치이므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된다.

4.2 사회적 요인군

사회적 요인군의 효과크기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80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 0.617, 상한값 1.543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80보다 큰 수치이므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된다.

하부요인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타인인식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80보다 크므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된다.

하위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Qb = 13.818). 따라서 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연친화적행동(1.984)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의사소통(1.141), 친사회적행동(1.019), 또래유능성(0.870) 순으로 나타났다.

4.3 심리·정서적 요인군

심리·정서적 요인군 효과크기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0.799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572, 상한값 1.027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보다 크고 .80보다 작으므로 수치이므로 중간효과크기에 해당된다.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ohen[46]이 제

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표현능력은 .80 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억제와 정서지능은 .20보다 크고 .80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 상관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_b = 0.954$).

4.4 문화예술적 요인군

문화예술적 요인군의 효과크기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55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883, 상한값 1.626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80보다 큰 수치이므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된다.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20보다 크고 .80보다 적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창의적 능력요인 외에 모든

요인이 .8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 상관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_b = 5.755$).

4.5 변화추이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의 전체효과크기 변화추이의 기울기 추정값은 0.048로 나타났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출판물에 가까울수록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의 효과크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결과다(<Table 5>).

요인군별 효과크기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군의 기울기 추정값은 0.042, 심리·정서적 요인군의 기울기 추정값은 0.068, 문화예술적요인군의 기울기 추정값은 0.032로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요인군에서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한 효과크기가 최근연구에 가까울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2. The group of Social factors

	<i>K</i>	<i>ES</i>	95% IC		<i>Q_b(df)</i>
Peer competence	7	0.870	0.456	1.284	13.818(4)**
communication	4	1.141	0.534	1.748	
nature - friendly behavior	4	1.984	1.371	2.596	
pro - social behavior	8	1.019	0.619	1.420	
Ability to recognize others	4	0.480	-0.074	1.033	
The group of Social factors	27	1.080	0.617	1.543	

** $p < .01$

Table 3. The group of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s

	<i>K</i>	<i>ES</i>	95% IC		<i>Q_b(df)</i>
Stress suppression	2	0.767	0.006	1.528	0.954(3)
self-regulation ability	10	0.818	0.461	1.175	
self-expression ability	8	0.905	0.510	1.299	
emotional intelligence	4	0.574	0.030	1.117	
The group of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s	24	0.799	0.572	1.027	

* $p < .05$

Table 4. The group of Cultural & Artistic factors

	<i>K</i>	<i>ES</i>	95% IC		<i>Q_b(df)</i>
Artistic ability	2	1.891	0.887	2.894	5.755(4)
Physical ability	4	1.073	0.349	1.796	
linguistic ability	14	1.381	1.004	1.758	
musical ability	11	1.389	0.961	1.817	
creative ability	6	0.739	0.172	1.306	
The group of Cultural & Artistic factors	37	1.255	0.883	1.626	

*p<.05

Table 5. Regression of year on Fisher's Z

	Parameter	Point estimate	SE	95% IC		p-value
The group of Social factors	slope	0.042	0.014	0.013	0.071	0.003
	intercept	-84.581	29.692	-142.778	-26.384	0.004
The group of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s	slope	0.068	0.019	0.029	0.107	0.000
	intercept	-136.115	40.057	-214.627	-57.604	0.000
The group of Cultural & Artistic factors	slope	0.032	0.015	0.002	0.063	0.036
	intercept	31.173	31.173	-125.816	-3.617	0.037
Total effect change trend	slope	0.048	0.009	0.030	0.066	0.000
	intercept	-96.780	18.552	-133.142	-60.419	0.000

*p<.05, **p<.01, ***p<.0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난 16년 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동요활동 효과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 어떤 요인들이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 동요활동의 효과와 관련하여 메타분석 한 선행연구를 발견할 수 없어 이와 유사한 동화구연프로그램 효과 메타분석 연구와 음악을 활용한 프로그램 효과 메타분석, 그 외 미술, 과학프로그램 관련 메타분석 연구들과 비교하여 이루어 졌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전체효과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큰효과 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윤미승[49]의 연구결과에서 관

련요인의 전체효과 크기가 1.36으로 큰효과 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하며,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조은별[50]의 연구에서 관련변인의 전체효과 크기가 0.923으로 큰효과 크기를 보인 것 일치된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 한 임주영 [51]의 연구에서 관련변인의 전체효과 크기가 1.04로 큰효과 크기를 보인 것과도 일치된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권위 있는 학회 및 다양한 연구기관을 갖춘 음악, 미술, 과학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동요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대등한 효과성이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관련한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둘째, 동요활동이 사회적 요인군에 미치는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군 전체효과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큰 효과 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음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 한 강혜선[52]의 연구결과에서 사회성의 효과크기가 1.269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사회성 증진 효과에 대해 메타분석한 조영미[53]의 연구에서 사회성증진의 효과크기가 1.274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 결과다. 따라서 동요활동이 음악, 미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사회성 증진에 효과적이며, 유아의 사회성 증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요인군 하위요인들은 타인인식능력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간의 효과크기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연친화적행동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의사소통, 친사회적행동, 또래유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친화적 행동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유아 대상 과학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 한 윤미숙[49]의 연구결과에서 자연친화적행동이 1.44로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 결과로 유아들이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가지며, 자연환경을 돌보고 사랑할 줄 아는 태도를 기르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동요활동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 동요활동이 심리·정서적 요인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심리·정서적 요인군의 전체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요인군과 문화예술적 요인군의 전체효과크기가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동요활동 특성 상 대·소집단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이뤄지기 때문에 유아 개개인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정서적 안정은 어느 시기든 중요하나 특히 유아기 정서적 안정은 성인기의 정서적 정서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요활동을 통하여 유아기 정서적 안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심리·정서적 요인군의 하부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억제와 정서지능은 중간효과크기를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표현능력은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대상 미술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 한 임주영[51]의 연구결과에서 자기표현요인이 1.509

로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 결과로, 동화활동이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정서지능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활동 특성 상 유아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자기표현능력 향상에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성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동요활동이 문화예술적 요인군에 미치는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적 요인군의 전체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요활동이 지닌 복합적 기능 때문으로 보여 지는데, 동요활동은 노랫말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언어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함께 노래 부르며, 소리를 어울리게 맞춰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음악적 요소를, 그리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미술적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문화예술적 능력을 향상시킴에 있어 동요를 활용한 프로그램 적용이 효과적임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또한 문화예술적요인군의 하부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창의적 능력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구연프로그램 효과와 관련 하여 메타분석 한 박경희[54]의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창의성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일치하나 그 외 미술적 능력과 관련된 그림 그리기 능력과 언어능력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동화구연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교육방법이 주를 이루는 반면, 동요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능동적 교육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적, 언어적 능력 향상에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창의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동요활동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일방적인 교사 주도적 구성이 아닌 좀 더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 주며, 현 유아 교육관점에 맞는 창의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동요활동 구성이 요구됨을 시사해준다.

다섯째,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의 전체효과크기 변화추이는 최근 출판물에 가까울수록 효과크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군별 효과크기 변화추이 역시 모든 요인군이 최근 출판물에 가까울

수록 관련된 요인군들의 효과크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요활동을 통한 요인들의 효과성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문화예술적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있어 기존의 음악, 미술, 과학 프로그램과 더불어 동요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로서, 국내 동요활동프로그램의 효과성 증가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변천사 연구와 지속적인 효과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등 유아대상 동요활동의 지속적인 효과성 증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요구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동요활동이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문화예술적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증명하였으며, 관련 요인들의 효과성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이를 뒤 받침 할 체계적인 연구와 행정적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난 16년 간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살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동요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변인들의 시대적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살펴봤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각각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동요활동의 하위요인을 선정함에 있어 비교 가능한 3개 이상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동요활동과 관련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 가능한 또 다른 하부변인으로 인한 상의한 분석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요활동 관련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메타분석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ang, Eun-Deok,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usical experiences of preschool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2, no. 1, pp. 477-503, 2017.
- [2] Kim, Kwon-II, "The effect of tempo change singing activity on young children's musical interest and musical express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2, no. 1, pp. 503-522, 2017.
DOI: <https://doi.org/10.20437/KOAECE22-1-19>
- [3] Sim, Myeong-Suk, "The effect of Orff and Dalcroze programs on the infant's rhythm learning",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14, no. 2, pp. 27-46, 1995.
- [4] Koelsch, S., Fritz, T., Schulze, K., Alsop, D., & Schlaug, G., "Adults and children processing music: An fMRI study", 『Neuroimage』, vol. 25, no. 4, pp. 1068-1076, 2005.
DOI: <https://doi.org/10.1016/j.neuroimage.2004.12.050>
- [5]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eacher's Nuri-Course guide for 3 to 5 year olds",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3.
- [6] Kim, Baek-Jun, "Theory and Practice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Seoul :Contemporary music, 2007.
- [7] Kwon, Yu-Ri, "A Descriptiv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Infant Music : In the Case of Daegu Region",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11.
- [8] Kim, Yeon-Hee, "Relationship of Music-Education Confidence to Awareness and State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in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e Graduate School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1.
- [9] Young, S., & Glover, J., "Music in the early years. Bristol", PA : The Falmer Press, 1998.
- [10] Son, Eun-Joo, "Research on the literatural characteristic of the children's song texts", The Graduate School Silla University, Master's degree, 2006.
- [11] Lim, Hea-Jung, "A Research on the Children's Songs Preferred in Korean Kindergartens", The Graduate School Duksung Women's University, Doctoral's degree, 2006.
- [12] Kim, Sung-Mi, "The Impact of integrated humanistic education activities involving children's song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ol. 11, no. 2, pp. 230-260, 2015.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5.11.2.239>
- [13] Kim, Hye Young, Kim, Jung-Ae, Son, Ji-Young, Kim, Kyung-Ha, Oh, Sook-Hyun, "The influence of play-song activity on the sociality and interest in music of young children at inclusive classroom",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0, no. 2, pp. 53-82, 2013.
- [14] Baek, Jin-Ju, "The Effects of Traditional Korean Folk Song Activities on Three-Year-Olds' Preschool Adjust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17.
- [15] Park, Young-Mi, "The Effects of the Traditional Playing with Nursery Rhyme on Linguistic Expressiveness and Peer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Chonnam

-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13.
- [16] Ko, Yeon-Cheon,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ies using traditional songs on the physical abilities and communications of the two-year-old infants", The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7.
- [17] An, Eun-Jeong, "Influence of group play activities using traditional agitation on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of 3-year-old infant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4.
- [18] No, Sung-Hee, "Effects of Traditional Children's Song Activities Connected Natural Objects on Young Children's Nature-Friendly Attitude and Emotional Ability", Th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2.
- [19] Lee, Kyoung-Yeon, Cho, Hyung-Sook, "The Effects of Rewriting a Children's Song through Nature Play Experience on Children's Creativity, Nature Friendly Attitude, and Musical Expressive Capability", 『Research of Children's Media』, vol. 15, no. 1, pp. 101-131, 2016. DOI: <https://doi.org/10.21183/kjcm.2016.03.15.1.101>
- [20] Park, Jee-Yeon, "The effects of traditional playing songs musical activity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usic Therapy, Master's degree, 2005.
- [21] Jang, Wan-Su, Choi, Mi-Sook, "The Effects of Physical Expression Activities through Traditional Children's Song on Young Children's Creative Physical Expression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Research of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vol. 18, no. 1, pp. 143-157, 2017.
- [22] Lee, Yun-ok,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Expressive Activity Based on Story-telling using Children's Songs on the Social-Emotional Ability of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4, no. 6, pp. 103-121, 2009.
- [23] Lee, Chaeg-Yeong, "Influence of Integrated Education Activities Using Personality Education on Young Children's Happiness", Uls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16.
- [24] Kim, Ji-Youn, "The Effect of Activities Applying Traditional Play Songs on Young Children's Daily Stress",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08.
- [25] Shin, In-Sook, Kim Ji-Young, "The Effects of Activities Using Traditional Play Songs non Young Children's Stresses", 『Research of Education Science』, vol. 39, no. 3, pp. 171-194, 2008.
- [26] Kim, Hye-Young, Kim, Jung-Ae, Son, Ji-Young, Kim, Kyung-Ha, Oh, Sook-Hyun, "The influence of play-song activity on the sociality and interest in music of young children at inclusive classroom",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9, no. 3, pp. 53-82, 2013.
- [27] Jeong, Hee-jeong, Kim, Hye-soon, "Effects of Integrated Traditional Korean Music Activities using Traditional Nursery Song on Self-regulation and Self-expression of Preschool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9, no. 4, pp. 413-434, 2012.
- [28] Lee, Hye-Seon, "Nature-friendly play utilizing traditional song The nature-friendly attitude of the infant Effects on emotional intellig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ster's degree, 2006.
- [29] Kim, Nam-Im,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ies through Korean Traditional Children's songs on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11.
- [30] Kim, Min-Ju, Jang, Seul-Ha, Kim, Chay-Youn, "The Effects of the Art Activity Linkage with Traditional Children's Songs on Young Children's Drawing Representation, Language, and Musical Expression Ability", 『Research of Korean Education Problems』, vol. 33, no. 1, pp. 127-150, 2015.
- [31] Sa, Sun, Oh, Sook-hyun, "The Effects of Nature Art Activity Using the Natural Objects Appearing in Folk Songs on Children's Nature Friendly Attitude and Artistic Expression Ability", 『Research of Parenting place』, vol. 7, no. 1, pp. 5-25, 2012.
- [32] Choi, Jing-yeong, "The traditional songwriting musical activity was performed by a 2-year-old infant Effects on vocabulary and body expressive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DongGyk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5.
- [33] Yang, Sung-Sook, "The Effects of Children's Song Activities Based on Balanced Approach on Young Children's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and Story Construction Abil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14.
- [34] Shin, Hyun-Jung, Lee, Sun-Kyung, "The Effects of Activities Through the Traditional Children's Song-Centering on rhythmic aptitude and rhythmic expressions", 『Global Social Welfare Review』, 6 : 25-48, 2013.
- [35] Woo, Su-Kyong, 'The Effect of Teaching Traditional Children's Songs Utilizing Kod?ly's Teaching Method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7, no. 1, pp. 5-25, 2012.
- [36] Choi, Sung-Eun, "The Effects of Play Activities Related to Traditional Children's Songs on Young Children's Self-Perception and Prosocial Behavior", Th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degree, 2005.
- [37] Kwak, Young-suk, "The Effects on Young Children's Musical Concepts through Intergrated Appropriate music",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10.
- [38] Jeon, In-Ok, Lee Suk-Hui,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Seoul : Korea Broadcasting University Publishing, 2003.
- [39]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ssoci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 Korean dictionary researcher, 1996.
- [40] National Instityte of Korean Language Republic of korea, "Korean Yearbook", Seoul : National Instityte of Korean Language Republic of korea, 2010.
- [41] Eom, Eun-Na, "The Effect of Writing Activities Using Songs on Young Children's Writing Perception and Writing Ability",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Master's degree, 2001.

- [42] Ko, A-Reum, "The Effects of Hwagatu Activities Related Children's Songs on Young Children's Reading Abiliti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15.
- [43] Ha, Jeong-Hui, Cho Yeong-Jin, Kang, Hye-Jeong,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Seoul : Knowledge Community, 2013.
- [44] Seo, Youn-Jeong, Lee, Dae-Kyun, "The Effect of Children's Song Using Storytelling on Infants' Vocabulary Abilitie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ycation』, vol. 21, no. 3, pp. 137-163, 2014.
- [45] Kim, Eun-Ja, "The Effects of Inquiring Traditional Nursery Rhyme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and Changdan",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10.
- [46]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1988.
- [47] Duval, S. J., Tweedie, R. L.,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plot-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Biometrics』, 56: 455-463, 2000.
DOI: <https://doi.org/10.1111/j.0006-341X.2000.00455.x>
- [48] Orwin, R. G., "A fail-safe N for effect size in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8: 157-159, 1983.
DOI: <https://doi.org/10.2307/1164923>
- [49] Yun, Mi-Seung,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Science Education Programs for Young Children's Scientific Literacy", Th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egree, 2015.
- [50] Jo, Eun-Byul,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Program", The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7.
- [51] Lim, Joo-Young, "A Meta-analysis of Art-therapy for childr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04.
- [52] Kang, Hae-Sun, "Research Trends and a Meta-Analysis of Music Therapy for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13.
- [53] Jo, Yeong-Mi,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Increasing Sociality of Art Therapy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Kwan Dong University, Master's degree, 2015.
- [54] Park, Kyung-Hee,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tory Telling Progra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degree, 2016.

문 동 규(Dong-Kyu Moon)

[정회원]



- 2011년 2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삼육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복지, 상담, 영유아교육